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WSJ: 미 중간 선거 앞두고 거의 모든 물가 상승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국채 금리 상승에 주식에서 국채로 자금 이동
- Reuters: 연준 Bowman 부의장, ‘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개편안’ 곧 발표
- Bloomberg: 골드만삭스 "미 기업 실적 거품 우려는 과도"
- CNBC: 워런 버핏, 버크셔 해서웨이 의장 사임… "세월 앞에 장사 없다"

[오일]
- WSJ: 유가, 사우디 공급 우려 완화로 사흘째 하락
- YahooFinance: 미 전역의 휘발유가 급등… 갤런당 4.44달러 기록

[미 중간 선거]
- TheEconomist: 민주당, 하원 탈환 확실시…승리 확률 92%

[트럼프 관세]
- Bloomberg: 미,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로 관세 발표 연기

[기업과 비즈니스 동향]
- Bloomberg: 싱가포르항공, 세계 최우수 항공사 1위… 카타르항공 제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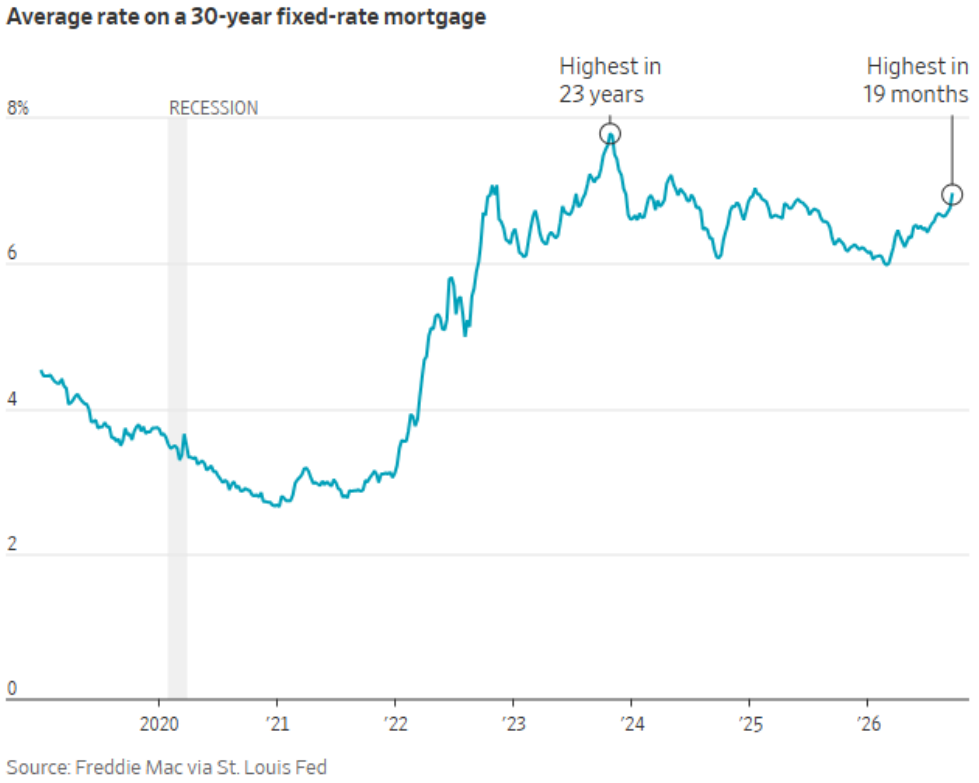
[공급망 일일 브리핑]
-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WSJ: Weeks Before the Midterms, Almost Everything Is Getting More Expensive
미 중간 선거 앞두고 거의 모든 물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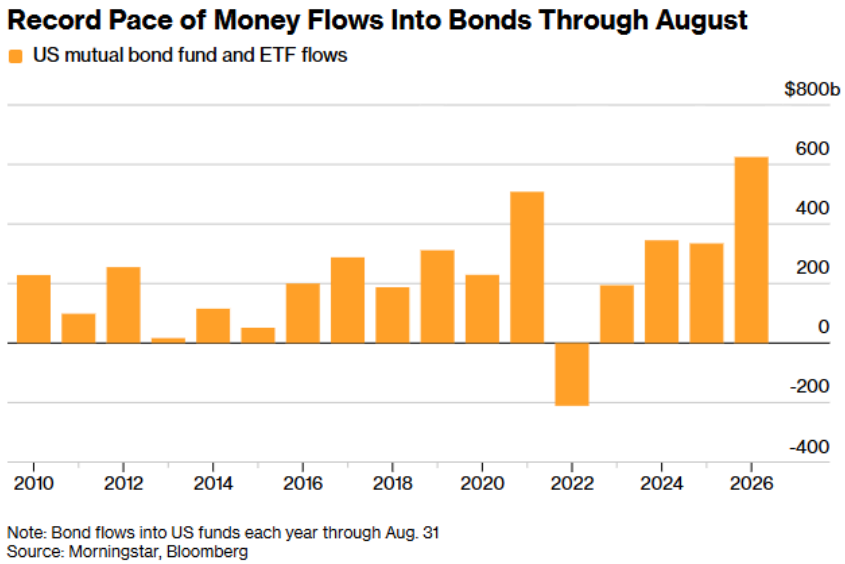
-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식비와 기름값, 집값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데다 높은 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며 가계 부담이 크게 늘었다.
- 8월 소비자물가가 3.4% 상승하자 연준은 3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. 주거비와 휘발유, 금융 비용의 동반 상승으로 체감 물가가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.
- 트럼프는 연준에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는 계속 표명했다.

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Bond Rout's Silver Lining Emerges With Chance to Grab 5% Yields
국채 금리 상승에 주식에서 국채로 자금 이동

-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년 만에 5%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그런데 폭락세 속에서도 8월까지 미 채권 펀드와 ETF에 6천2백5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. 운용사들은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이동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.
- 연 5% 이상의 수익률은 머니마켓펀드(MMF) 대비 높은 매력을 제공하며 이자 수익을 원하는 매수세를 끌어들이고 있다.

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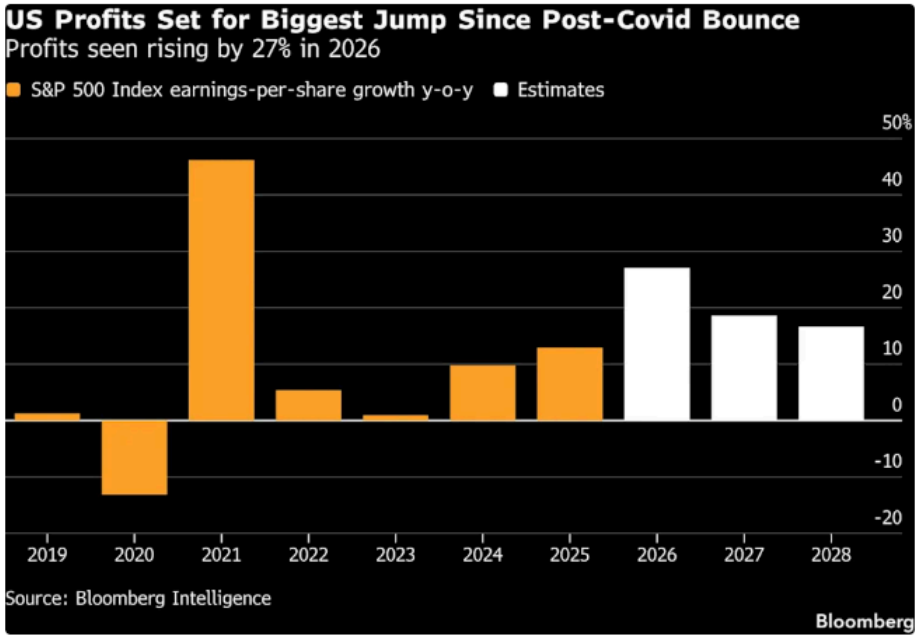
Reuters: Fed's Bowman says changes to bank stress test coming soon
연준 Bowman 부의장, '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개편안' 곧 발표

- 연준 금융감독 담당 Michelle Bowman 부의장이 대형 은행 대상 '스트레스 테스트' 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해 검사 과정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.
- 이는 그간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 과제다.
- 그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문을 통해 "향후 몇 주 내로 개편안의 최종안을 검토할 예정"이라며 "불투명하고 불필요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기존 체계를 마침내 끝낼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기사

Bloomberg: Goldman’s Snider Says Fears of US Earnings Bubble Are Misplaced
골드만삭스 "미 기업 실적 거품 우려는 과도"

- 미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은 탄탄한 경제 여건과 AI 붐에 기반한 것이기에, '실적 거품'을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이 진단했다.
-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S&P500 기업의 올해 1·2분기 이익은 각각 30%가량 크게 증가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. 연간 전망 역시 2021년 팬데믹 반등기 이래 가장 강력하다.
- AI 투자가 급증하며 기업 이익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시각에 대해, 골드만삭스 팀은 실적이 급락하기보다는 향후 몇 년간 완만하게 조정받을 것으로 내다봤다.



Bloomberg · Bloomberg Intelligence

기사

CNBC: Warren Buffett steps down as chairman of Berkshire Hathaway: 'Father Time always wins'
워런 버핏, 버크셔 해서웨이 의장 사임… "세월 앞에 장사 없다"

- Warren Buffett 회장이 벅셔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. 후임 의장직은 그의 아들 Howard Buffett이 맡는다.
- 1965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Warren Buffett 회장은 연평균 19.7%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하며 S&P 500 지수 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.
- 그는 이길 수는 없다 말과 함께 의장직을 내려놓았다.

기사

[오일]

WSJ: Oil Prices Fall for Third Day as Saudi Supply Concerns Ease Slightly
유가, 사우디 공급 우려 완화로 사흘째 하락

- 사우디의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, 최근 2주간의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.
- 유럽장 중반 기준 브렌트유 선물은 1.5%,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0.5% 하락해 가격은 현재 1백 달러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.
- 사우디 당국이 공격으로 손상된 동서 파이프라인의 일부 가동을 며칠 내로 재개하기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공급 불안이 일부 해소됐다. 다만 파이프라인의 완전 복구까지는 6~8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.

기사

YahooFinance: Gas prices jump across the US. See map of state-by-state numbers
미 전역의 휘발유가 급등… 갤런당 4.44달러 기록

- 미국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.
- AAA와 EIA에 따르면 오늘 목요일 기준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.44달러로, 일주일 전(4.28달러)보다 크게 뛰었다.
- 이란 전쟁 여파로 6개월 넘게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"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이룬 성과에 비하면 매우 적은 대가"라며 "기름값은 곧 폭락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기사

[미 중간 선거]

TheEconomist: Democrats are heavy favourites to flip the House
민주당, 하원 탈환 확실시…승리 확률 92%

-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시뮬레이션 모델 분석 결과, 민주당의 하원 과반 차지 확률은 92%에 달했다. 중간값 기준 민주당이 약 37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진 않지만, 이번 2026년 미 의회 선거는 그의 집권 2기 국정 운영에 대한 전국적 신임 투표 성격을 띤다.
- 의회 주도권을 어느 정당이 잡느냐에 따라 Donald Trump 임기 후반 2년의 국정 동력이 달라질 전망이다.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Bloomberg: US Said to Hold Off on Tariffs Until After Xi-Trump Summit
미,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로 관세 발표 연기

- 미 정부가 다음 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로 대중국 신규 관세 발표를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.
- 협상에서 관세 위협을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. 애초 미 행정부는 회담 전 보고서를 내고 중국산 제품에 7.5% 관세를 권고할 예정이었다. 최종 관세율이 유지되면 트럼프 집권 2기의 대중국 관세는 기존 무역 휴전 때 정한 수준인 약 20%로 돌아가게 된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Singapore Air Wins Best-Airline Award as Qatar Cedes Top Spot
싱가포르항공, 세계 최우수 항공사 1위… 카타르항공 제쳐

- 싱가포르항공이 Skytrax가 발표한 연례 조사에서 카타르항공을 제치고 세계 최우수 항공사 1위에 올랐다.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 항공사들이 타격을 입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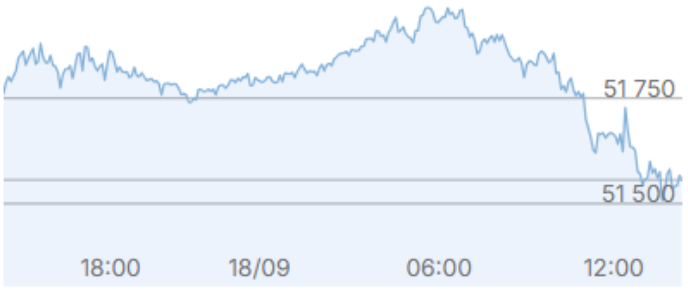
- 약 2천5백만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아시아 계열 항공사들이 상위권을 석권했다.
- 승객 편의 및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항공사는 상위 10위 안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, 유럽에서는 에어프랑스-KLM이 유일하게 포함됐다.

기사

[글로벌 해운 브리핑]

- 이란 혁명수비대(IRGC)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토고 국적 유조선을 타격했으며, 영국 해양무역기구(UKMTO)도 호르무즈 해협 보안 사건을 공식 보고했다.
-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량은 하루 3~4척 수준으로 급감했고, 바브엘만데브 해협 역시 선박 통항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. 사우디 동서 송유관은 후티 공격으로 3개 펌프장이 피격됐으나 수일 내 재가동이 예상되며, 브렌트유는 사우디가 오만 경유 우회 수출로를 확보하면서 105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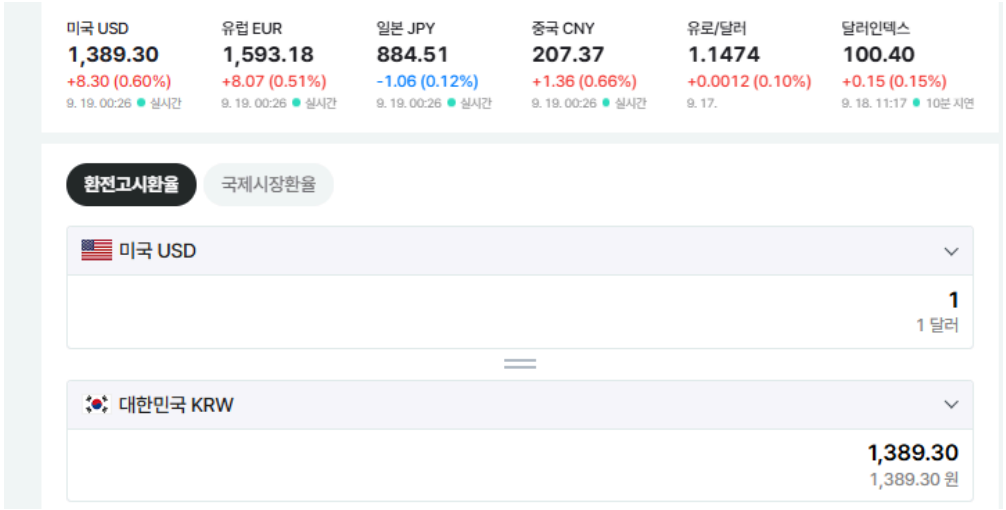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582.50	-197.3	-0.38%
US 500	7,629.20	-8.5	-0.11%
Dow Jones	51,573.44	-204.60	-0.40%
S&P 500	7,630.15	-7.56	-0.10%
Nasdaq	26,412.03	-6.27	-0.02%
S&P 500 VIX	15.25	-0.19	-1.23%
Dollar Index	100.093	+0.108	+0.11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-29/32	5.339	0.048
10-Year Note	4.625	-5/32	5.006	0.069
7-Year Note	4.5	-4/32	4.932	0.070
5-Year Note	4.375	-25/32	4.862	0.069
3-Year Note	4.375	-2/32	4.827	0.078
2-Year Note	4.125	-1/32	4.748	0.065
1-Year Bill	0	1/32	4.411	0.042
6-Month Bill	0	0/32	4.259	0.015
3-Month Bill	0	0/32	4.080	0.015
1-Month Bill	0	1/32	3.874	0.031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